

충청남도교육청 전국 교육청 최초 AAC존 운영



1 충남교육청 민원실에 설치된 AAC존
2 안내대스크 휠체어용 공간 3 장애인 주차장



2



3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 민원실에 AAC(보완대체의사소통)존을 운영한다.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약자로, 말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충남교육청과 언어치료AAC센터 ‘사람과소통’(대표 한선경)이 협력해 개발한 ACC그림판은 모두 27개의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구성돼 해당 그림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교육 민원 발급뿐 아니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향후 도교육청 민원실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학교까지 AAC그림판을 보급할 예정이어서 충남 내 모든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언어장벽 없는 의사소통 환경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슈보고서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 관련 민원분석’ 자료를 분석해 장애인 편의시설도 개선했다.

도교육청은 ▲ 점자블록 주변 장애물 제거 및 점자블록 추가·변경 설치 ▲ 층수가 표기되지 않은 계단 손잡이 점자 표지를 층수 표기로 변경 설치 ▲ 장애인 주차장 재도색 ▲ 안내데스크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 설계·확보 등 장애인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시설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이용해 청사 내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게 했다. 건물 내 층수를 점자로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또 휠체어 이용자는 안내데스크에서 편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교육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좀 더 친화적인 수요자 중심의 의사소통으로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❶